

# 필리핀 수용소에서 텔레그램 통해 마약 유통한 일당 검거

### 국내 필로폰 3.5kg 밀반입... 12만명 동시 투약분 판매책·매수자·투약자 58명 검거해 23명 구속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된 조직폭력배와 공모,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투약한 일당이 검거됐다.

19일 정재남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 총경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불법 유통한 판매책 25명과 매수·투약자 33명 등 모두 58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검거된 총책 A씨는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인터넷 적색 수배된 인물이다. 그는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로 2018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2020년 현

지에서 폭력사건으로 검거돼 현재 추방 전 외국인인 수용하는 이민국 수용소에 있다.

A씨는 국제특송 화물 등을 통해 필로폰 3.5kg(12만여 명 동시 투약분·시가 116억 원 상당)을 국내 밀반입,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필리핀 수용소에 휴대전화 반입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구글, 트위터 등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광고를 올려 국내 판매책 역할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판매책이 잠적하거나 도주, 자수할 것에 대비해 신분증 같은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300만~10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받는 등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A씨는 필리핀 수감 동기인 국적 불상의

국민을 통해 알게 된 국내 체류 나이이지리아인 B씨에게 톱니바퀴 모양 부품에 은닉한 필로폰을 국제특송 화물로 보내 국내에 반입시켰다.

이후 B씨가 국내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판매책 25명에게 이를 전달하면 약속된 장소에 필로폰을 가져다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전국에 유통했다.

이번에 검거한 유통·판매책 25명 가운데 4명은 서로 공모해 포장·운반·판매 등 역할을 나누고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범행과 체포 시 행동 강령을 마련하는 등 별도 조직을 구성, 필로폰 유통조직 최초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다. 이들 4명은 모두 20대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벌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약 2.6kg 등 각종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필리핀 수용소에 있는 A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국내 판매책과 유통망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톱니바퀴 등 기어류 경우 기업이 해외에서 샘플을 들여와 바로 연구

에 착수해야 해 통관 절차가 관대한 편인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 A씨를 송환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누워서 보는 콘서트’, 다함께 즐겨요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누워서 보는 콘서트’를 찾은 장애인 및 가족 등 관람객들이 가수 김장훈과 김중서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 광주 환경단체 “홍수 완충지 영산강변, 파크골프장 추진 중단을”

### 북구 연제동 4만㎡ 규모 27홀 파크골프장 설치

광주 지역 환경단체가 홍수 완충지이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영산강 하천 부지 내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하천지킴이로 구성된 빛고을하천네트워크(이하 환경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기후 위기를 맞아 영산강은 가뭄 때는 식수로, 홍수시에는 완충 지역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영산강 수질오염, 생물 서식지 파괴, 홍수시 범람 문제 등을 우려했다.

환경단체는 “이 곳은 지난 2020년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광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복구 비용 15억 원이 투입된 곳”고 주장했다.

또 “이곳은 시민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영산강 덕흥보에서 4km 떨어진 상류에 위치해있다. 오는 5월이면 5만톤의 식수를 공급할 영산강 하천 부지에 추가 체육 시설을 설치해선 안 된다”며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수달이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습지의 하천 경관이 형성된 곳”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골프장 개발보다 영산강 수생태 회복과 수질 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광주시·북구청은 북구 연제동 730번지 일대 영산강 하천부지 4만3738㎡에 파크골프장 27홀 설치를 추진 중이다.

개발된 북구 종합운동장 주변의 습지를 제



거하고 파크골프장 27홀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슬비기자

## “어깨 쳤냐”며 마트서 손님 마구 때린 40대 구속

마트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손님을 마구 폭행한 40대가 출소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마트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마구 때린 혐의(상

해)로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30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마트에서 다른 손님인 40대 남성 B씨에게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B씨는

늑골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